

전주 희망더드림 100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520억원 추가 금융지원... 특례보증 사업 28일부터 추가 신청·상담 접수

전주시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경영자금 규모를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해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로 4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어진 3고(高)1저(低)의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 및 상담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시와 전북은행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80억 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첫 해인 올해 480억 원(내년도 7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480억 원 규모의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이 조기

소진된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지속적 관심과 문의, 전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각계각층의 확대 요청 등이 잇따르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 전주시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올해 추가로 520억 원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소기업 1.5억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리는 연 5.82%(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객부담금리는 연 2.82% 수준이다.

상담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이 임대사업장인 경우 사업자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 소재지가 완산구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상담 및 서류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보증 심사를 거쳐 사업제당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직접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jbcredit.or.kr)을 확인하면 되며,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소기업 17명(법인 6, 개인 11)에게 9억 원(법인 2억 원, 개인 7억 원), 소상공인 1134명(법인 30, 개인 1104)에게 471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460억 원) 등 총 48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든든히 지지해왔지만 가나간 코로나19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고통이 지속된 소상공인들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단 자금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발전을 이뤄내 전주시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송영진, 부위원장 전유미)에서 고금리 시대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을 촉구하는 등 노력으로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이 함께 협업해 이뤄낸 사업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지역 도서관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도심 속 피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사진은 송천도서관 아동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도서관으로 피서 떠난다'

폭염 속 더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전주지역 도서관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시민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도심 속 피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7월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전주시립도서관, 북소문도서관 등 9개 시립도서관의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피서철이 시작된 7월부터 북소문·삼천·평화 등 도서관의 전체 이용자 수를 집계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 18만1007명와 비교해 약 17% 증가한 21만1489명이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전주지역에 연일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 가계 부담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가족 단위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도서

관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해 각 도서관별로 여름독서교실 등 다양한 여름 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개방형 창의도서관 확대 조성에 따라 도서관별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된 것도 도서관 방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도서관마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음악회를 여는 등 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술 작품 전시 및 달빛공연(금암) △삼시 영화상영(인후) △토요 가족극장(삼천) 등으로, 서로 다른 분야와 성격의 문화 프로그램을 내세워 피서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기도록 하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김옥기 기자

이웃 지키는 '생명사랑 안심택시' 전주 누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이웃의 자살 예방을 돕는데 앞장서는 생명사랑 안심택시가 전주 곳곳을 누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17일 우리택시와 성심택시 소속 택시 60대를 생명사랑안심택시로 지정하고, 헤드레스트 자살예방 홍보카드 전달식 및 부착행사를 가졌다.

생명사랑안심택시는 전주시가 지역 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안심택시 운전자가 운행 중 대화를 통해 극단적인 표현이나 우울감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자살위험자를 발견해 상담전화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홍보카드는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 번호와 정신건강 자가검진 QR코드가 삽입됐으며, 생명사랑안심택시의 조수석 헤드레스트에 부착돼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의 자살 문제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자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빠르게 발견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기재부 이어 문화재청 방문... 최응천 문화재청장 만나 후백제역사문화권·문화재 현안사업 지원 건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우범기 시장이 기재부에 이어 문화재청을 방문해 후백제역사문화권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전주시 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역사문화권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핵심사업인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후백제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 시장이 이날 문화재청에 건의한 핵심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의 체계적인 연구 및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미래전승자' 육성 및 어린이들이 무형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한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대왕의 숭모공간과 후백제문화유산 관광



우범기 시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전주시문화재 관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후백제역사문화원 조성' 등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후백제역사문화권의 재조명과 종합적인 연구, 조사, 역사문화자원 활용 등 관련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정부의 전전제

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신규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후백제 왕도이자 전라도의 수도인 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관련 국가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음주 뺑소니 후 9시간만에 자수한 30대... 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을 하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전주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여파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 등 2명이 다쳤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조사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방침이다.

/뉴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